보 도 설 명 자 료
('14.3.20)

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
제목 : "동북아오일허브 실현 쉽지 않다" 관련 보도에 대한 설명('14.3.20, 파이낸셜뉴스 18면)

1. 기사내용

□ 산업통상자원부는 동북아오일허브를 위해 3,660만배럴 규모의 저장시설을 마련할 계획이나 싱가포르의 저장시설은 7,000만 배럴 이상으로 추정되는 등 싱가포르 시장 대체에 역부족

□ 울산지역 오일허브 합작법인에 탱크터미널 운영사인 보팍이 투자하였으나, 오일허브 성공을 위해서는 트레이딩업체가 참여 해야할 필요

MOTIE
MINISTRY OF
TRADE, INDUSTRY & ENERGY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입장

□ 정부는 동북아오일허브 구축을 위해 **총 5,660만배럴 규모의 상업용 석유저장시설을 추가 확보**할 계획

○ 여수와 울산에 3,660만배럴 규모의 저장시설을 신규로 건설하고, 유휴비축시설의 상업적 이용으로 2,000만배럴을 추가 확보

* 현재 구축된 비축시설 규모는 총 146백만배럴 수준이나 실제 비축된 석유량은 91백만배럴로, 향후 유휴설비를 상업용 저장시설로 활용 예정

○ 싱가포르의 저장시설 규모가 7,000만배럴에 이른다는 평가는 **석유와 석유화학제품 저장시설을 모두 포함**한 것임

□ 동북아오일허브 구축은 동북아 지역의 석유물동량 확대를 바탕으로 **우리나라를 세계 4대 오일허브로 육성하겠다는 사업**으로 싱가포르를 대체하는 것은 아님

□ 보팍이 참여한 울산북항사업 합작투자법인(코리아오일터미널(주))은 **저장시설 전문 운영업체**로, 트레이더 등 시설 이용자의 **이해관계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하며 영업비밀을 보장할 필요**

○ 따라서 **오일트레이딩 전문업체보다는** 보팍과 같은 **상업용 저장시설 운영 전문회사가 합작투자법인의 해외 파트너로 더욱 적합** /끝/

※ 관련 문의 : 산업통상자원부 석유산업과 강경성 과장 (010-5316-5443), 배성준 서기관(010-9288-7500)